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3년 4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듯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23년 1~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36,018,832

구 분	2023년 1월		2023년 2월	
자동이체	706명	18,839,892	703명	9,683,120
지 로	59명	1,709,150	86명	977,190
CMS이체	196명	2,442,000	192명	2,367,480
합 계	961명	22,991,042	981명	13,027,79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6,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0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1,100,000	제전비, WYD 지원(항공권계약금)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6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1,1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8,868,832	운영비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36,018,832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3. 03 / 제68호

펴낸날 2023. 03.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후원회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회(悔)**개하고 뉘우쳐 하느님과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회(回)**심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화와 회심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나타내는 단어는 나라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 '사순'(40을 뜻함)은 라틴어 'Quadragesima', 이탈리아어 'La Quaresima', 스페인어 'La Cuaresma', 프랑스어 'Le Carême'와 동일한 단어 및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Lent'이고 베트남어로는 'Mùa Chay'입니다. 영어'Lent'(어근 단어 'Lencten')이란 말은 '봄'을 의미하고 베트남어인 'Mùa Chay'는 '단식절'을 뜻합니다. 이러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곧 하느님의 풍성함과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다양한 얼굴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축일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육화(강생)의 신비를 기념합니다. 그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예"(Fiat)라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즉시 잉태(임신)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흐르도록 문을 열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풍요를 주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는 '잉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의 삶에 들어가 삶이 더 충만하고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탄절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명백히 보여주듯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생명의 시작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주사목 활동은 조용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삶에 들어가 분명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원고삼**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지난 한 해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사회적 격차와 편견을 받고 있으며, 교실 내에서도 따돌림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능력, 학습부족, 의사소통 능력 부족, 정신건강 문제, 정서적 문제, 우울감, 소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인 이 학생들 대부분이 사춘기를 겪을 시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이 청소년의 각기 다른 재능을 발굴하고 잘 할 수 있는 특기를 개발해 주어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원했던 한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IT)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포기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해주어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과 함께 자존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을 정도로 학생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주배경 청소년이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결과가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에도 응원하며 꾸준한 성취감과 배움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공동체 소식*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주민들을 위해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과 함께 베트남 전통 음식나눔도 하고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지며 설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설날 미사에 나무를 만들어 말씀사탕을 걸어놓고 하나씩 뜯는 문화(녹탄(LOC THANH): 봄의 새싹이 움튼다)가 있습니다. 이 말씀사탕을 한 해의 하느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기억하며 지냅니다. 받은 말씀이 힘이 되어 올 한해도 모든 이주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공동체 소식*

산토니뇨(Santo Niño=Holy Child=아기 예수) 축제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산또니뇨상(아기예수상)은 1521년 세부 족장과 그의 백성이 가톨릭 세례를 받은 후 스페인 선교사들이 족장의 아내인 조안나 여왕에게 세례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필리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산토니뇨 축제가 가톨릭 신앙 시작의 상징이고 이 산토니뇨상은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산토니뇨 축제는 1월 셋째 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필리핀 공동체도 이 날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토니뇨 축제 전에 필리핀 공동체 센터에서 9일 동안 미사를 드렸으며 1월 25일 혜화동 성당에서 산토니뇨상 축복과 미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축복하며 산토니뇨 축제 미사를 기념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2월 10일 졸업식 3명의 어린이가 졸업을 하였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감동의 자리였지만 24시반을 지냈던 한 어린이는 졸업식 당일 어머님이 수원에 있는 일터에서 야간근로를 하고 퇴근 후에 졸업식 참석이 늦어지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졸업식을 지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많이 아쉬워하며 마지막 헤어질 때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어린이는 어린이집 가까운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키워주신 후원자분들의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실 소식*

이주노동자 상담실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가지의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실 2022년 현황

국적	태국	몽골	베트남	페루	필리핀	중국	콜롬비아	예멘	이란	멕시코	아이티	모로코	기타	총계
신규	53	31	16	7	7	5	4	4	4	3	3	2	12	151

*기타국가 :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세네갈,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한국

상담 유형별로는 의료가 89건으로 절반 넘게(58.9%) 차지했습니다. 기타(21.2%), 출국(7.3%), 임금(4%), 쉼터(4%), 퇴직금(3.3%), 산재(1.3%) 순이었습니다. 의료는 전년 대비 비율이 3%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으로 전체 상담 유형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 1명과 선천 기형인 무항문 아기 1명 같은 경우는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 바보의 나눔 재단 등과 같은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고, 부인과 질환, 치과 진료, 근골격계 관련 질환, 배뇨기관 질환 등의 비교적 경미한 사례는 위원회 인근 협약을 맺은 지역 병원으로 연계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입원, 수술 등의 고비용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이 16.9%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질병관리청의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미등록 근로자들이 백신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신청이나 예약을 도왔습니다.

기타상담으로는 대사관 업무(여권 갱신 또는 재발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이혼, 생활 고충, 난민 등이 있었으며,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 방법 안내, 동행하거나 난민지원단체로 연계하였습니다. 쉼터는 질병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 구직, 귀국 준비 기간 중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이주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많은 기관의 협조와 후원자님들의 따듯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소외된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